

금속노조 2017년 임단협 쟁의조정신청

22일 중노위 접수...27일부터29일까지 찬반투표, 7월3일 쟁의권 확보

노조가 2017년 임금·단체교섭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가 6월22일 오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교섭, 지부집단교섭, 사업장 보충·대각선 교섭 등 130여 사업장, 조합원 3만2천여 명 소속 교섭단위에 대한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노조는 7월3일부터 쟁의권을 확보해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사전조정신청을 승인받은 단위는 미리 진



행한 쟁의조정신청으로 대체하고 교섭 미진이나 단위 상황으로 이번 조정신청에 참여하지 못한 단위는 지부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노조는 6월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전체 교섭단위는 시간과 장소를 단위별로 정해 찬반투표 총회를 진행하고 각 지부는 결과를 모아 조합으로 보고한다.

노조는 6월19일 120차 중앙위원회에서 조합을 포함한 전체 지부, 지회를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22일 조정신청과 27일 찬반투표 총회를 결정했다.

5천억원 연대기금 조성, “응답하라 현대차그룹”

금속노조, 20일 일자리 연대기금 제안...채불임금 소급분 일부로 초기자금 마련

금속노조(위원장 김상구, 아래 노조)가 ‘노사공동 일자리 연대기금’ 조성과 현대기아차그룹사 공동교섭을 제안했다.

노조는 20일 현대기아차그룹사 지부·지회 대표자가 참석한 기자회견을 열어 금속산업 하청중소업체 일자리 보호와 확대를 위한 연대기금으로 현대기아차그룹 노사가 함께 초기자금 5천억 원을 조성하고 매년 2백억 원씩 적립하자고 제안했다.

노조는 현대차그룹이 ‘정기상여

금은 통상임금’이라는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면 연대기금 초기자금 조성이 당장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에 따라 현대기아차그룹사 조합원의 미사용 연월차수당과 연장근로 수당 등에서 발생한 일부 미수령 임금채권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상구 위원장은 “9만3천여 조합원이 소급분 최소액을 기준으로 일부를 출연해 2천5백억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유기 현대차지부장은 “현대차그룹은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수하는 소모적 소송을 하지 말고 그룹사 공동교섭으로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현대기아차그룹 노사가 교섭과 합의로 기금을 출연해 사회적 역할을 다 하자”고 결단을 주문했다.

노조는 이 같은 제안을 담은 요구안을 지난 12일 공문으로 현대차그룹에 발송했으나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현대글로벌비스, 동진지회 노조파괴 개입 증거 나와

21일, 국회 기자회견...대체인력 투입 계획, 블랙리스트 작성 등 하청사 노조파괴

현대글로벌비스가 금속노조 울산지부 동진지회(비상대책위원장 김태균, 아래 지회) 노조를 파괴하려고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노동자들의 취업을 막은 증거가 드러났다.

노조와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6월21일 국회 정론관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는 현대글로벌비스-현대차 노조파괴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글로벌비스의 하청업체 노조파괴 실태를 폭로했다.

지회가 이날 공개한 ‘비상운영 대책방안 점검’, ‘HMC 울산5공장 노무관리 강화 방안’ 등 문건에 따르면 현대글로벌비스는 매주 하청업체 대표들과 회의를 열어 하청업체 노조 설립을 사전 방지하고, 노조 관



리 방안을 논의했다.

현대글로벌비스가 2016년 6월 작성한 ‘HMC 울산5공장 노무관리 강화 방안’ 문건은 노동자와 개별면담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작업장 내 단체모임을 금지하며, 노조 가입자를 사외 사업장으로 전출하는 등 하청업체별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글로벌비스는 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취업을

방해하거나 재취업을 미끼로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했다. ‘HMC 울산5공장 노무관리 강화 방안’ 문건에 “동종사에 개인신상 공유(타 사업장 입사 차단)”란 문구가 있다.

김태균 지회 비상대책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이 인간답게 살아보려 금속노조에 가입하니 현대글로벌비스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재취업을 방해하고,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해 해고나 다름없는 상태에 놓였다”며 “하청노동자들은 노조를 만들면 안 되느냐.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동진오토텍과 현대글로벌비스, 현대자동차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할 계획이다.

갑을오토텍지회, “지금 이 순간부터 공장 정상화 매진”

19일 갑을오토텍지회, 직장폐쇄 해제에 대한 입장 발표

금속노조 갑을오토텍지회(지회장 이재현, 아래 지회)가 6월19일 회사의 직장폐쇄 해제와 업무복귀 공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현 갑을오토텍 지회장은 입장문에서 “공장정상화를 앞당기는 긍정적인 신호”라며 “노조파괴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는 한, 지금 이 순간부터 공장 정상화에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회는 1년에 가까운 직장폐쇄로 인한 상흔은 회사 경영진의 직장폐쇄 해제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용노동부 역시 경영진 불법행위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 사태 장기화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재현 지회장은 “신임사장 부임과 함께 이뤄진 직장폐쇄 해제 조치에 대해 노사관계와 공장정상화의 새로운 조건이 형성됐다고 판

단한다”며 “노조파괴에 맞서 함께 해 주신 수많은 분들에게 먼저 고마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갑을오토텍은 지난해 7월26일 시작한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오는 21일 7시40분부터 정상업무를 개시한다. 지회는 복귀에 따른 공장 정상화와 더불어 노조파괴로 중단했던 2015년과 2016년 임금교섭도 조속히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